metro

메트로 2015년 2월 4일 수요일 제3150호 www.metroseoul.co.kr

기사 밀어내기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이라는 검색어로 관련 기사를 찾았을 때 3일 오후 4시20분 현재 '정확도순' 으로 등장하는 기사목록. 메트로신문이 정 부회장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1월 31일 오전 11시54분 송출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왜 쓸개를 잘라냈을까' 기사 위에 그를 극찬하는 인터넷매체들의 기사가 줄줄이 올라와 있다.

관련기사 p/9

현대차 를 미술관서 만나게 한 정의선 부회장의 제안 프라임경제 23시간전

현대차는 고객들에게 자동차와의 소중한 추억을 예술품으로 간직할 수 있는 【프라임경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4년 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선포한 새로운 브랜드 방향성인 모던 프리미엄 을 실천하기 위해...

정의선 부회장, 'WRC' 진두지휘… 'N' 브랜드 직접 키운다 뉴스웨이 1일전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난달 모나코 몬테 카를로를 시작으로 개막한 '월드랠리챔피언십(WRC)'을 진두지휘하며 고성능 차량 브랜드 'N'을 직접 키우고 있다. WRC는 한해 동안 5개 대륙...

정의선 부회장, 수소전쟁 선포 TV리포트 23시간전 네이버뉴스

과연 정의선 부회장이 전면에 나선 현대차와 토요타 두 브랜드 간 전개되는 치열한 '수소 전쟁' 에서 정부가 향후 재서할 정책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기대된다. happyyjb@tvreport.co.kr

남다른 정의선 부회장의 스포츠사랑, 그룹내 구단운영도 적극 지원

경제투데이 23시간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스포츠 사랑은 남다르다. 한국양궁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 부회장은 그룹 내 스포츠단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부회장은 다른 3세 경영인과는 달리 스포츠를 통한...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차 브랜드 가치… 100억불 돌파 미디어펜 3일전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차 브랜드 가치... 100억불 돌파/현대자동차 [미디어펜=김태우기자]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31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양궁전사 글로벌 외교관 육성 박차 NSP통신 2일전

(서울=NSP통신 김은태 기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양궁 전사들의 글로벌 스포츠 외교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30일 오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15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왜 쓸개를 잘라냈을까 메트로신문 3일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연합뉴스 [메트로신문 | 이연하 기자] 정의선(45)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 1989년 담낭절제 수술 전력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 무렵 새파란 청춘 10대였을 그가 왜 쓸개를 잘라내는 극단적인...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

새누리의 '무서운 반란'

김무성·유승민 '건보료 개편 재추진' 요구…정부, 백지화 발표 6일만에 부활

원내지도부마저 비박(비박근혜)계가 장악하자마자 새누리당에 '무서운 반란'이 시작됐다. 여당의 반란에 청와대는 침묵했지만 정부는 꼬리를 내렸다. '오락가락 정책', '콘트롤타워 부재' 등의 비판을 낳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지화 발언 6일만에 다시 부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오전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맞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치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정의했다.

또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라고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독설에 가까운 김 대표의 비판에서 내각도 비껴가지 못했다. 김 대표는 내각을 향해 "국정운영의 중심이지 국정을 집행하는 곳"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각의 청와대 눈치보기와 인사 논란에 대한 비판이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건보료 개편에 대해 "복지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역시 취임 첫날부터 건보료 개편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당·청관계의 변화를 민생정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건보료 개편은 당연히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라며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여당의 요구에 대해 함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개편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논의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재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개편 재추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여야 원내대표 궁합은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왼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 76학번에 17대에 나란히 국회에 입성한 정치 동기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북한 마식령스키장 건설중인 인민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강원도 원산시 인근에 조성된 '마식령스키장'의 건설 과정을 소개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주요 성과의 하나로 꼽는 스키장은 2013년 12월31일 개장했다. 사진은 스키장을 건설중인 인민군 군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동북아 새 짝짓기?

북러 밀월에 한중 군사회담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말이 동북아에서 입증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도 4일 국방장관회담을 연다. 한국전쟁을 고리로 한 북중 혈맹이란 말이 벌써 옛이야기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짝짓기로 이어지고 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초청으로 방한해 다음날 한 장관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할 예정이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지난 2006년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국방부는 창 부장의 방한은 2011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국방장관의 만남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미국의소리(VOA)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합참의장)이 국방부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베트남·쿠바·브라질 국방부와 대규모 군사회담을 하고 합참모장 수준에서 접촉을 확대할 것이며 이들 국가의 육해공군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비서가 특사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방문한 뒤로 북러 관계는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

한중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정세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부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와 [illegible]사 등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은 '무력시위'성으로 변해가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등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군사 분야에서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방장관회담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정윤아기자 yuona1@

'삼성 정조준' 이학수법 이번주 발의

삼성그룹을 정조준한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이번주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개막한 전날 본회의장에서 이학수법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요청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대표발의 의원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의원이 서명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방송에 출연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취득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올해 5월 끝나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학수법을 2월 국회에서 만들고 4월 국회까지는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학수법은 재벌가의 상장 차익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물론이고 최근 삼성SDS 상장으로 천문학적인 차익을 실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가 1차 표적이다.

법안에는 최근 삼성SDS 주식회사 상장을 계기로 과거 범죄행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환수를 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경제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제안이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형기자

"이완구, 삼청교육대 핵심 역할"

진성준 의원 주장…이 후보자 측 "하위직 행정요원 불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9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참여해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삼청계획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이다.

진 의원은 2007년 12월 발간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보위 내무분과위는 불량배 첩보 수집과 검거 신고 자수권유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불량배 현황'과 함께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전 검거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80년 당시 치안본부 기획감사과 경정으로 근무하다가 내무분과위 행정요원으로 파견돼 활동했다.

진 의원은 국회 5공청문회 때 김만기 전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의 증언을 인용해 "행정각부 실무자가 파견 요원으로 참여해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를 협의 조정했다고 한다"며 "따라서 이 후보자는 삼청계획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청교육대 경력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당시 내무분과에서 담당한 역할은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으로서 문서수발·연락업무 등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보국훈장광복장은 국보위 분과위 근무인력에 직제별로 전원 수여된 훈장이었고 이 후보자는 훈장 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보훈혜택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저작권법 개정 논란

제140조의 공포

2007년 '비친고죄' 전환 이후 법파라치 극성 기준 개정 추진에도 "자의적 만생악법" 비판 높아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40조의 단서조항 단 한 문장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던 것이 2007년 '비친고죄'로 전환됐다. 단서조항과 연결되는 벌칙조항에 따르면 저작권과 그에 따른 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재산권자가 아닌 제3자가 형사고발할 수 있다.

그 결과 2006년 1만8000건이던 저작권 위반 관련 고소·고발이 비친고죄 전환 이후인 2008년 9만건이 넘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괴이한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저작권법 140조를 악용한 법파라치들의 '합의금 장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해 4월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펌 등에서 저작권 위반을 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는 사람 중에 받은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국 대학(원)생 3000명 중 529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인구로 추정해 보면 1년에 최소한 150만명이 같은 경험을 하는 셈이다.

현재 경미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그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스스로 죄를 인정했다는 빌미가 돼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월 국회에는 현재 저작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100만원 이상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를 적용한다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시민사회의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홍금에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3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누가 어떻게 조사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라지게 된다"며 "비친고죄를 폐지하지 않는 한 모든 저작권 이용자들을 법파라치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는 만생악법"이라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 증인 나와야" 김제남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을 만들고 이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B 회고록 수난시대

"류경 처형설 말바꾸기 MB 위선적"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 출신의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이 이명박정부가 2011년 자신이 제기한 류경 전 부부장의 처형설을 부인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와서 회고록을 통해 이를 확인한 것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키노 연구원은 류 전 부부장이 재일동포 출신 며느리를 제외한 일가족과 함께 처형됐다며 류 전 부부장이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서울 방문 후 처형당한 북측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류 전 부부장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은 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한 북측 인사가 북한으로 돌아가 처형됐다고 언급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2011년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류 전 부부장이 비밀리에 남한을 방문한 데 이어 처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2011년 2월 초 류 전 부부장의 재일동포 출신 며느리를 강제로 이혼시킨 뒤 류 전 부부장 일가족을 그의 평양 자택에서 총살했다는 보도였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 류경의 방남설을 부인한 바 있다.

마키노 연구원은 류 전 부부장에게 '반역행위'가 적용됐고 그가 남한 방문 보고서에서 일부 행적을 부실하게 기재해 의심을 산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북측의 핑계일 뿐이며 류 전 부부장 처형은 김정일이 3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쌓여있는 설 선물 택배 3일 오전 서울 구의동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설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설 선물 소포, 택배 물량을 분류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 설 명절 소포와 택배물량을 약 1541만개(하루 평균 1/2만개, 평소의 1.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 오는 16일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뉴시스

대법관 후보자도 '어두운 경력' 의혹

박상옥, '박종철군 고문치사' 수사 담당검사 경력 누락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명의 고문경찰관만 기소하는 데 그친 1987년 수사에서 검사로서 1~2차 수사팀 모두에서 일했다. 하지만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나 박 후보자의 주요 경력에는 해당 경력이 빠져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4일 서울대학교 3학년이던 박종철군이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연행된 후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87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경찰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며 고문치사를 은폐하려 했지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1987년 2월 27일 고문경찰관들에 대한 1차 수사에서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았으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명의 고문경찰관만 기소했다.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이를 폭로하자 재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하지만 당시 치안본부장에 대해서는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며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치안본부장은 87년 민주화항쟁 이후인 1988년 1월 15일에서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주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해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박 후보자는 당시 담당검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해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병형기자

면세한도 초과반입 '세금폭탄'

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는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한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가된다.

이는 2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p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윤아기자

권익위 "화장품 사용기한 확인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화장품 관련 소비자 구매편의와 이용안전 보호를 위해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권고를 통해 화장품 1차·2차 포장 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시되도록 화장품법 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했다. 내용물은 물론이고 겉포장에도 사용기한이 표시된다는 의미다. /송병형기자

"미인·천재 연관짓지 말라"

'엉뚱 매력' 미스 유니버스 베가 인기 폭발

metro Nicaragua

"미인대회 참가자가 백과사전은 아니죠. 우리도 무대에 서면 다른 사람들처럼 긴장하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지난달 2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플로리다 국제대학교에서 열렸던 '미스 유니버스 2015' 우승자인 콜롬비아의 파울리나 베가(22)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4개 국어에 능통한 재원이지만 무대에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베가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비웃지만 스스로 똑똑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베가의 인기는 급상승중이다. 구글에서 '미스 콜롬비아' 검색어가 하루 만에 두 배로 급증할 정도다. 특히 월트 디즈니는 베가를 모델로 첫 라틴계 공주 캐릭터를 제작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리 이국명기자

마사이족의 모스크바 방문기

metro Russia

최근 모스크바를 방문한 특별한 손님이 화제다.

메트로 모스크바는 사진작가 율가 미지의 사진전에 참가하기 위해 6명의 마사이족이 모스크바를 찾았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사이족의 생활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거의 마사이족이 된 미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다. 미지는 온 몸을 장식하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물을 긷고 소똥을 짜고 요리를 하는 등 완전한 마사이족으로 생활해왔다.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마사이족과 함께 지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미지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낸 덕분에 마사이족이 가족처럼 느껴진다"며 "태어나 단 한번도 고향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마사이족이 모스크바와 내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아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빅토리아 엘리그비 기자·정리 이국명기자

일본 '경제 강국' 포기하나

'아베정권 우경화 폭주'에 해외 진출 일본 기업 울상

군사대국화 길 향한 아베(사진) 정권의 거침없는 질주에 일본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질참수 사건을 빌미로 아베 정권이 자위대 무력사용까지 언급하면서 일본 기업인을 겨냥한 이슬람국가(IS)의 후속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NHK, 요미우리,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진행된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어 "지리적으로 어디이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 행사에) 맞지 않는다거나 가깝기 때문에 맞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지리적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이같은 강공 드라이브에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공명당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는 "지난해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각의결정에 입각해 무엇이 가능할지 신정하고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기업 중동 투자 급제동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IS가 일본인에 대한 추가 테러를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 IS 관련 지역에 장기 체류 중인 일본 기업인은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해외 주재원들에게 긴급 e-메일을 발송해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주재원은 즉시 대피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는 별도로 1.26만명(2013년 10월 추산치)에 달하는 재외 일본인의 신변 안전강화를 위해 정무관(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 검토팀을 만들기로 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예전 사태로 중동에서의 일본기업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IS의 후속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오바마 4조 달러 예산안 제출 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4조 달러(약 4400조 원) 규모의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연방정부 예산안이 공개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실행된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 상의 법정 상한선보다 740억 달러 많은 3조9900억 달러 예산안을 이날 미 의회에 제출했다. /AP 연합뉴스

"알리바바 '유령학위'까지 판매"

홍콩 경찰도 수사 나설 듯

유령대학 학위까지 판매했다.

최근 짝퉁 판매 논란에 휘말린 중국 알리바바 그룹에 이같은 의혹까지 더해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알리바바 그룹의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에 '홍콩 쑤원(蘇文)대학'의 졸업장과 학위를 100~1000 위안(약 1만7000~17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올라왔다고 3일 보도했다.

문제는 쑤원대학이 홍콩 교육부에 교육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대학 소개 홈페이지도 홍콩 국제금융센터(IFC)와 하버시티 쇼핑몰 건물 사진에 교명과 로고를 포토샵으로 편집해 캠퍼스 건물(사진)인 것처럼 가장한 사진으로 꾸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쑤원대학 교육발전그룹 대표라고 주장하는 천센은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본토의 대리점들이 허가 없이 학위 증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홍콩 경찰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23일에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이 지난해 하반기 대형 인터넷몰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타오바오의 정품판매율이 37%로 가장 낮았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국명기자

금융 30년 설계 머리맞댄 금융 수장

'범금융 대토론회' 개최…6시간 마라톤 회의

금융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범금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금융의 30년 나아갈 길을 설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 6개 협회와 금융지주, 은행, 증권사, 카드사 CEO와 전문가 등 108명이 참석했다.

오후 3시부터 6시간 동안 이어진 대토론회는 '금융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리처드 돕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장과 강임호 한양대 교수,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강 교수는 세미나에서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거래 등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IT와 금융 융합의 새로운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조없이는 양쪽 모두 성공할 수 없다"며 "핀테크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모두가 이익을 만드는 윈-윈 비즈니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이용자와 금융사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금융권에 개선사항도 요청했다.

박승민 소녹티어 대표는 "기술을 지원하는 선진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옐로페이 대표는 모험투자 관련 기업 수요 현황을 사례로 "정부의 모험투자는 노력이 폄하되지 않고 엔젤투자자를 만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며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금융회사에서는 ▲정책 일관성 유지 ▲실질적 수검부담 경감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감독기관 지원 ▲소통 강화 등을 금융검사와 감독 혁신 요청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 방안'과 하나은행의 '벤처캐피탈과의 협업', BS금융그룹의 '기술금융' 등 금융회사의 주요 성공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에서 '혁신전쟁(Innovation War)'에 대응해 금융 개혁을 실천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다.

또 보수적 금융 관행을 혁신하고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 개선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담보위주 여신 관행과 이자수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국내시장 내 우물안 영업, 불합리한 금융규제 등은 과거의 낡은 틀"이라며 "핀테크(Fintech) 육성과 기술금융 확산, 해외진출, 규제개혁 등이 금융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자 독자적 성장을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금 전 세계는 금융과 다른 분야 간 융합과 함께 혁신전쟁을 하고 있다"며 "개혁은 한국 금융·경제에 보약(補藥)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권 스스로 혁신전쟁에서 살아남아 성장하기 위해 '개혁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백아란기자 alee@metroseoul.co.kr

소비자물가 2개월째 0%대

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8%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올라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2%대의 상승세를 회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해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다.

생활물가 지수는 식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0.3% 떨어졌고 신선식품지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떨어졌다.

상품 중 농축산물은 1년 전보다 0.7% 상승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양파(-29.2%)와 감(-26.9%), 배추(-22.1%) 등의 가격이 대폭 떨어졌지만 상추(58.0%)와 시금치(52.3%), 고등어(13.8%), 돼지고기(10.5%)의 가격이 올라 이를 상쇄했다.

반면 공업제품은 전년동월대비 0.1% 올라 3개월 만에 상승했다.

휘발유(-20.0%), 경유(-21.6%), LPG(-21.0%,자동차용) 등의 내림세가 커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두드러졌으나 올해 가격이 대폭 오른 담배(83.7%, 국산)의 영향 등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료(1.6%)는 전년 동월대비 올랐지만 도시가스가 6.1% 떨어져 전기·수도·가스는 2.6% 하락했다.

/유현제기자 rmyu@

우리은행 역대 은행장 농구장 찾아 우리은행 역대 은행장 5명이 지난 1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한새 여자프로농구단의 홈경기를 찾아 농구단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김진만, 이덕훈, 황영기, 이종휘, 이순우 전 은행장이 참석했다. /우리은행 제공

중국 하나은행 "현지화·리테일 영업으로 中 잡는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중국 통합법인인 중국 하나은행이 중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3일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일 북경소재 포시즌호텔에서 통합 중국하나은행 출범식을 갖고 현지화 전략과 리테일 영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하나은행은 하나은행의 리테일과 PB업무, 외환은행의 외국환·대기업영업의 강점을 융합해 시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하나은행 중국법인에서만 가능하던 인민폐 영업이 30개 영업점에서 가능하게 돼 3년내 이익금을 2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2025년에는 중국내 외자은행 Top 5 진입할 것을 목표로 잡았다.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선 인력의 현지화를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분행장은 중국인으로 교체돼 며 상임 이사회의장(동사장)은 중국인으로 영입해 중국 현지영업에 대한 전권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중국에 없었던 '168적금 하나', '1카드'와 같은 융복합 상품과 한류를 이용한 맞춤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상품과 고객의 현지화를 동시에 달성할 방침이다.

중국현지 금융사와 협력을 통해 비은행부문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리스업은 중국인생투자유한공사와 합작사 형태로 진출을 꾀하며, 이를 위한 업종 분석을 통해 연내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액대출시장의 진출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은행부문과 비은행부문의 협업을 통해 현지화 영업을 상호시키고 국내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리테일 영업에도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의 특화된 PB서비스를 중국시장에 접목시켜 중국 최초로 '상속·세무 전문센터'를 설립, 펀드상품 자문서비스와 중국 VIP고객 지내 대상 글로벌 홈스테이사업 등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연내 출시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계좌개설부터 대부분의 업무를 인터넷에서 처리 가능한 '다이렉트뱅킹'도 선보일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market index <3일>

코스피	코스닥
1951.96 (-0.72)	593.31 (+3.04)

금리	환율
1.94 (-0.05)	1097.40 (-5.90)

뉴스&뉴스

우리은행-삼성증권 MOU

● 우리은행은 3일 삼성증권과 상호 고객의 거래확대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거래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데 협력하고, 필요시 관련 IT시스템과 복합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또 상호 거래 고객에 대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사업의 공동 발굴 등 협업 모델도 구축키로 했다.

특히 임원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동협의회를 통해 업무전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구체적인 동반성장을 모색할 방침이다.

업무 협약은 IB와 WM 등 각 부문별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업무부터 협력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계열금융사가 아닌 은행과 증권사가 협약을 통해 복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라며 "양사 CEO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롯데카드, '설맞이 이벤트'

● 롯데카드는 3일 설명절을 맞아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설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 동안 여행이나 외식, 영화관람을 계획중인 회원은 22일까지 사용한 정산이용실적을 바탕으로 롯데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해외 모든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국내 면세점, 음식점, 영화관에서 이용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20·50·100·250·50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은 각 5,000·15,000·40,000·100,000·200,000 롯데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백아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의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95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8·9
독자센터 02)721-9801
2005년 5월 20일 정기간행물등록 서울마행사 가00076

"국내는 좁다"…해외로 영역 넓히는 손보사

해외 자회사 물건 위주 실적…사업다각화 필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위주의 영업이 대부분으로 현지 판매루트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손보사인 PTI(Post & Telecommunication Insurance)의 지분 37.32%를 인수하고 1대주주 자격을 확보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기준 베트남 시장점유율(M/S) 7.2%로 현지 29개 업체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최근 동부캐피탈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어 할부금융을 활용한 자동차보험 등 현지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해외사업실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일반본부와 기획실 등에 흩어져 관리하던 해외사업 업무도 일원화해 효율적인 해외영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1998년 선진 보험시장인 영국 로이즈 시장에서도 진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상반기 미국, 중국, 인도 등 11개국에 법인·지점·사무소를 운영해 198억60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수치다.

현대해상도 국내 손보사 중 처음으로 내년 상반기중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현지에서 시무소장 채용을 공모했다.

미국에서는 중소형 미국 보험사 인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인수에 성공하면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현지 업체를 갖게 된다.

현대해상의 해외자산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상반기 해외자산은 71억7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손보사들이 해외진출에 속도를 내자 이들 해외 점포의 총자산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이들 해외점포의 총 자산은 24억59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5.12%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보사의 해외 영업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손보업계가 생보업계보다 의욕적으로 해외 진출이 활발해 보인다"면서도 "이는 삼성화재의 싱가포르 재보험사인 삼성리의 경우처럼 해외진출 계열사 물건을 처리하거나 국내기업의 물건을 주로 처리해온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성과 내기에 성공하려면 ▲핵심역량을 고려한 명확한 경영목표 설정 ▲해외사업 관련 비용과 현지 보험수요를 고려한 상품·판매채널 전략 ▲진출국가와 방식의 다변화 ▲현지화 촉진을 위한 현지 국내 기업과의 협력 ▲현지에 진출한 보험사의 사업다각화 등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모델하우스 방문객 '뻥튀기' 여전하네!

같은 장소서 동시 오픈…방문객 수 3배 차

지난 주말 현대산업개발과 KCC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동시에 오픈한 모델하우스의 방문객 수가 3배 넘는 차이를 보여 업계의 방문객 수 부풀리기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문을 연 위례 우남역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 주말까지 3일간 2만 여 명이 다녀갔다. 반면 같은 기간 KCC건설의 위례 우남역 KCC웰츠타워 모델하우스에는 6000여 명만 방문했다.

업계에서는 아이파크와 KCC웰츠타워라는 브랜드 선호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숫자가 벌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두 오피스텔 모두 우남역을 끼고 들어서는 데다 중소형 아파트 대체 주거지로 조성되는 등 상품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지·상품은 물론 모델하우스 위치도 비슷한 만큼 수요자가 양쪽 모두를 둘러볼 가능성이 높다"며 "천단위로 차이를 보일 수는 있어도 1만 명 이상 벌어진 것은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대산업개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상대측 오피스텔보다는 많은 인원이 방문한 것은 사실이다. 1만 명 안팎으로 다녀갔는데 숫자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실제 수치를 발표한 상대측과 차이가 났다"고 털어놨다.

사실 이 같은 모델하우스 방문객 수 부풀리기는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다.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많다고 알려져야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소비자 심리가 발동, 분양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견건설사 홍보팀 관계자는 "사람이 많다고 소문이 나면 없던 관심도 생기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그래도 실제 방문객 수에서 1000~2000명 더하는 수준인데, 심한 곳들은 2~3배씩 뻥튀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모델하우스를 함께 공개해 방문객 수도 거의 비슷한 동시분양이나 공동분양의 경우 업체들끼리 미리 입을 맞추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업체별 방문객 수가 너무 다르면 거짓말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방문객 수 부풀리기는 소비자를 속인다는 측면에서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업계는 관행이라도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하고 수요자도 업체 측 발표자료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선욱기자 [illegible]

NH농협금융 설맞이 군부대 위문 방문 NH농협금융지주는 3일 임종룡 회장과 임직원들이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7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동부 전선 수호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금융 제공

현금서비스 이용자 2명 중 1명 신용등급 강등

외환·현대·신한카드 강등비율↑

최근 4년간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2명 중 1명은 카드사 내부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이용 신용등급 강등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9.6%(2295만명)에 달하는 고객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작년 9월까지 국내 8개 카드사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4626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연평균 618만명에 이르는 규모다.

같은 기간 외부 신용등급인 신용조회회사(CB사)의 신용등급은 강등당한 회원도 전체 현금서비스 이용 회원의 33.2%(1534만명)에 달했다. 전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233조9766억원으로 1인당 50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외환카드 이용자의 카드사 내부 신용등급 강등이 가장 많았다.

외환카드는 전체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의 82.2%인 154만명의 신용등급을 낮췄다. 이어 현대카드 62.6%(383만명)와 신한카드 62.1%(738만명), 롯데카드 59.2%(257만명), 하나SK카드 56.0%(133만명), 삼성카드 32.2%(229만명), KB국민카드 32.1%(273만명), 우리카드 31.8%(128만명) 순으로 강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인원이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카드사별로 현금서비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현금서비스 관련 대책을 보면 현금서비스 사용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홍보에만 치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는 카드사별로 합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중복되는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위험성을 알리기 전에 현금서비스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면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illegible]

사랑합니다

아끼주고 사랑하고 웃음 넘치는
당신의 아름다운 삶 속에
애경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누고 손잡아주고 배려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애경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M&A시장 급성장… 대출펀드 '홍수'

금융업계 속속 진출… 인수금융 경쟁 더 치열해질 듯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외국계 IB들의 전유물이던 기업 간 인수·합병(M&A) 자금조달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들 회사는 M&A 대출펀드를 조성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에 인수 자금줄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금투업계의 이번 진출로 기존 은행권이 다루던 인수금융 분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월쯤 5000억원 규모의 사모대출펀드(PDF)를 결성할 목표를 세우고 투자 유치에 나섰다.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 증권·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며 한국투자증권은 약 3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한다.

지난해 국내 M&A 시장이 3년새 4배 넘게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금융권에서 앞다퉈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나섰다.

꾸준히 IB 영역 진출을 모색하던 차에 지난해 기업들의 매각과 대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 M&A 시장이 급성장하자 틈새시장을 노린 잰걸음을 내디뎠다.

신한은행과 하나대투증권은 지난해 각각 5650억원 규모의 '신한시니어론펀드'와 7000억원 상당의 사모부채펀드를 조성했다.

KB자산운용도 이달 말까지 5000억~6000억원 규모의 M&A 대출펀드를 결성할 것으로 전해진다.

송치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IB 업무를 위해 자기자본을 늘려놓은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진출할 만한 비즈니스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M&A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며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심사를 통해 적합 기업과 사모펀드(PEF) 등에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며 "은행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업이나 정보 보안 등 신속한 의사결정을 원하는 기업들이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금투업계에서 M&A 시장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PEF를 지원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국내 PEF들은 연기금과 공제회 등 자금조달의 한계로 리스크가 있는 M&A를 피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금투업계의 M&A 대출펀드 금리는 은행권 인수금융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를 원하는 기업이 이곳저곳에서 자금을 모으기보다는 이러한 대출펀드를 통해 금리가 비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M&A 시장은 797억 달러(87조3000억원, 부동산 인수 포함) 규모로 전년(413억 달러) 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억 달러대에서 주춤했다가 지난해 삼성그룹의 구조조정과 OB맥주, 다음카카오 등의 대형 M&A가 이어지면서 400억 달러를 돌파하고서 급속도로 불어났다.

저금리로 인한 금융 여건도 기업 M&A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데 영향을 줬다.

국내 금투업계는 지난 2013년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시행으로 M&A 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IB로 지정돼 기업 대출 등 신규 업무를 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여행주, 유가 하락·환율 겹호재

실적 개선·여행 수요 증가로 성장세

여행 관련주가 양호한 실적과 사업 다각화 기대감에 연일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여행업종의 대표주인 하나투어는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7300원(8.41%) 급등한 9만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처음으로 9만원을 돌파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2011년 말 3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꾸준 상승해 6만~7만원선을 유지해왔다. 올 들어선 단숨에 8만원을 넘어서더니 주가 상승했다.

모두투어도 지난해 7월 27일 1만7700원까지 밀렸으나 차츰 주가를 회복했다.

연초부터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타면서 이날엔 장중 2만95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거듭 경신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진 가운데 환율, 호텔·면세점 등 사업 다각화에 따라 여행업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여행사들의 최근 실적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하나투어의 올 1월 송출객수는 전년 대비 30%, 모두투어는 지난 12월 기준 34.8% 증가했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류할증료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지속 인하돼 항공권 단가가 낮아져 여행 수요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엔저가 일본 여행 수요를 이끌고 있고 유로화 환율의 급락으로 유럽 여행 수요가 자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철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부진했던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기저 효과인 측면도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가 더 실적과 성장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상하기자

설 보름 앞으로… 신권 준비됐나요? 설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신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LIG손보, 5기 희망 서포터즈 출범

LIG손해보험은 3일 서울 역삼동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공식 고객 패널단인 'LIG희망 서포터즈' 제5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패널제도란 대표로 선발된 고객패널들이 소비자의 시각에서 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앞으로 약 4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리플렛, 팜플렛, 콜센터 점검 및 다이렉트 보험가입 프로세스, 매직카 서비스 점검 등 고객서비스를 평가한다. 또한 신상품 팜플렛 제작에 직접 참여해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가득 담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5기 선발에는 패널 추천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홍성준 LIG손해보험 고객지원담당 상무는 "고객과의 진솔한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자 희망서포터즈 5기를 출범하게 됐다"며 "패널단이 들려줄 생생한 고객의 소리와 개선 아이디어를 통해 고객선호도 1위 보험사 라는 비전에 더욱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metroseoul.co.kr

국내 증시 외국인 선호도 높아진다

한국, 신흥국 중 거래대금 큰 시장

향후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내 증시 유동성과 통화 안정성 등에 따른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과 기타 지역 간의 경기모멘텀 축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채매입 결정에 따른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향후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기 회복세가 완만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 증시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내할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의 신흥국 유입이 기대된다고 민 연구원은 설명했다.

우선 외국인 수급 개선을 이끌 요인으로 높은 증시 유동성이 꼽혔다.

그는 "국내 증시는 신흥국 가운데 거래대금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라며 "지난 2013년과 2014년 버냉키 쇼크, 신흥국 통화 우려 당시 원·달러 환율은 신흥국 통화대비 안정성을 보인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국 경제는 지난해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냈고 높은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달 글로벌 투자자들은 신흥시장 채권과 주식을 모두 130억 달러 어치 사들였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도 최근 조사에서 고객들의 70%가 단기적으로 신흥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은 점차 고평가되는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저평가 시장 중 하나"라며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로 유럽발 투자금이 신흥시장으로 상당수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우기자

기사 밀어내다 네이버에 "혼내달라"

한국광고주협회 "오늘 메트로신문 처리 논의"

메트로신문은 최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병역면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안들을 보도했다.

마침 범 삼성가인 한솔그룹 3세의 병역비리 사건으로 재벌 3~4세들의 군복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애초 단발성 보도로 끝내려한 사안이었으나 '병무청과 의료계 등을 취재하던 중 새로운 사안이 속속 드러났다.

문제는 면제사유였다. 정 부회장은 10대에 담낭절제 수술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군 입대를 면제받았다.

그런데 담낭 적출가는 설사 없더라도 일상생활은 물론 군복무에도 사실상 지장이 없고 이에 따라 군 당국도 지금은 담낭절제를 병역면제 사유에서 제외했다.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의견을 구한 결과 '전형적인 부유층 병역면탈 냄새가 난다'는 반응이었다. 당연히 속보성 기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상한 것은 현대차측 반응이었다. 첫 보도가 온라인으로 나간 이후 현대차 홍보팀은 취재기자나 데스크 등에게는 전혀 항의성 전화조차 해오지 않았다.

대신 마침 당일 메트로신문에 게재될 예정이던 현대차 광고를 다시 빼라는 요구만 광고국을 통해 해왔다.

이후 뒤늦게 현대차 홍보팀 임모 상무가 메트로신문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메트로신문은 거절했다.

이 때부터 현대차 홍보팀의 이른바 '기사 밀어내기'가 본격화됐다.

<정의선 부회장이 찾은 디트로이트 모터쇼… 다음 모터쇼는?>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모터스튜디오'…모스크바 다음은?> <얼리어답터 '정의선' CES는 몇 번째?> <정의선의 자 모하비 7년만에 1만대 돌파> <정의선의 자 모하비 출시 7년만에 1만대 돌파 저력> 등등.

메트로신문이 '정의선 병역' 관련 기사를 올릴 때마다 정 부회장을 극찬하는 기사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올라와 차곡차곡 쌓였다. 이런 해괴한 일은 사흘동안이나 되풀이 됐다.

현대차 홍보팀은 부사장-실장에다 상무-이사대우 팀장 등 100여명의 막강 파워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정의선 병역' 기사를 네이버 뉴스 코너의 첫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업무라고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었던 걸까? 토요일인 31일 오전 10시 4분 네이버뉴스관리팀으로부터 메트로 미디어운영부장에게 메일이 도착했다. 한국광고주협회가 네이버에 항의한다는 짤막한 내용이 담긴 메일이었다.

31일 밤 9시 22분 이메일을 확인한 메트로 담당자가 곧바로 네이버측에 해명 답신을 보냈으나 네이버와 메트로 간의 신뢰관계에는 이미 상당히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광고주협회가 네이버측에 보낸 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메트로가 1월 15일 강세준 편집국장 취임이후 연일 부정적 기사를 쓰고 기업을 찾아다니며 광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며 오너일가와 관련한 악의적인 기사를 쓰고 부당한 협찬금액을 회원사에 요청하여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2월 4일 이사회에서 긴급하게 메트로의 사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메트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한국광고주협회."

한마디로 네이버측에 "메트로 손 좀봐달라"는 식의 압박이었다.

명백히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 훼손'이고 '업무방해'이며 '언론탄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네이버에 이런 문건을 보낸 주체가 '한국광고주협회'라고 명기돼 있지만 이 단계는고 이전에 메트로신문 측에 어떠한 사실확인이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네이버에 따르면 한국광고주협회는 이 문건을 네이버에 보내면서 "(조만간) 정식공문을 발송하겠다"고 했다.

즉 이날 네이버에 보낸 문건은 정식 공문이 아니며 그 주체도 '한국광고주협회'가 아니라 이를 무단으로 사칭한 누군가인 셈이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 전국 199개 대한민국 대표 기업 홍보 업무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이른바 '나쁜 언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매체들을 자신들 입맛에 따라 편을 가른다.

실제로 일부 매체를 '나쁜 언론'으로 지정한 적도 있다.

대한민국 대기업의 홍보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이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매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는 없다.

'정의선 병역 기사 밀어내기'에 매체들이 줄서서 동참하는 대한민국 언론의 서글픈 현실이 역으로 이들의 막강한 언론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LG전자, 1.39kg '그램 15' 출시

초경량 노트북 라인업 강화

LG전자가 '그램 13'과 '그램 14'에 이은 세 번째 그램시리즈 '그램 15'(사진)를 출시하며 초경량 노트북 라인업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15.6인치 노트북 중 가장 가벼운 제품인 그램 15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품은 15.6인치(39.6cm)의 대화면에도 무게는 1390g이다. 한국기록원이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15.6인치 노트북 중 그램 15가 가장 가볍다고 인증하기도 했다.

외형 커버에 마그네슘 소재가 적용돼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눈의 피로가 덜한 넓은 화면에 9.4㎜의 초슬림 베젤은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그램 시리즈 가운데 처음으로 숫자 전용 키보드가 탑재돼 작업 효율이 높다.

그램 15는 인텔 4세대 CPU보다 그래픽과 멀티태스킹 성능이 20% 이상 향상된 인텔 5세대 CPU를 탑재했다. 고밀도 배터리를 사용해 최대 사용시간은 10.5시간까지 늘렸다. 또 울프슨(Wolfson) 하이파이 오디오를 탑재해 고음질 사운드를 제공한다.

제품 가격은 i3·i5·i7 등 탑재된 CPU 사양에 따라 각각 142만원·164만원·204만원이다.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샴페인 골드, 메탈 블랙 등 세 가지로 출시된다.

배재철 LG전자 한국영업본부 HE마케팅FD(Function Division)담당 상무는 "기존 15인치 이상 노트북은 휴대성이 떨어져 데스크 노트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넓은 화면에 가벼운 무게까지 갖춘 그램 15는 학생들은 물론 외근과 출장이 많은 직장인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hjung0424@

삼성전자 핀테크 시장 진출 본격화

갤럭시S6 모바일 지갑 '삼성페이' 적용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페이에 맞설 수 있는 자체 결제 서비스인 '삼성 페이'(가칭)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달 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공개 예정인 갤럭시S6에 모바일 결제 기술을 탑재할 방침이다.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페이'를 위해 미국의 전자결제 업체 루프 페이, 페이팔, 비자카드 등과 제휴하고 중국에서는 유니온페이와 제휴하는 등 국별 제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삼성이 우선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미국의 루프 페이와 페이팔이다. 스마트폰을 마그네틱 신용카드 결제기 근처에 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루프페이 가맹점 수는 1000만 개로 애플페이의 가맹점 수 22만 개보다 월등히 많다.

국내에서는 결제대행업체 '옐로 페이'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 유력하다. 옐로 페이가 시행 중인 6개 시중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씨티 등)간 모바일 송금을 이용하게 되면 '삼성 페이'가 모바일 송금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에 갤럭시S6에 결제 서비스를 탑재한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3일 전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삼성 언팩' 초대장을 발송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기존 갤럭시 시리즈와 차별화된 '갤럭시S6'를 전격 공개한다.

/유성웅기자 ysw@

LG전자 고효율 주택전용 태양광 모듈 출시

LG전자가 태양전지 시장 공략을 위해 주택용 태양광 모듈(사진)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작고 가볍지만 국내 최고 효율을 갖추고 있다.

LG전자는 태양광 모듈 신제품인 '15년형 모노 엑스' 를 2월 중 국내에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결정 웨이퍼 54셀을 사용해 기존 대비 크기와 무게를 약 10% 줄이고도 주택전용 태양광 모듈 기준 국내 최고 효율의 250W(와트) 출력 제품이다.

태양광 모듈 최적화 기술과 단결정 웨이퍼 기반의 고효율 셀 기술을 적용해 250W 출력 모듈 기준으로 16.87%의 발전 효율을 달성했다. 기존 모듈의 효율은 15.53%이다.

60셀을 쓰는 기존 제품은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주변 구조물 그림자에 태양광이 가려질 경우 약 40%까지 발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 모노엑스는 50셀로 모듈 크기를 160㎜ 줄였다. 모델 12개를 조합하는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약 2㎡ 정도 설치 공간을 줄일 수 있다. 사이즈가 작아 공간 활용도를 높인 덕분에 옥상, 지붕 등 좁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기존 제품보다 1.4kg 가벼운 무게로 지붕의 내구성 문제도 개선했다. 마을 단위로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면 10가구 기준으로 구조물 무게가 약 400kg 줄어든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유성웅기자

신형 i20·쏘렌토 iF 디자인상

현대·기아자동차가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신형 i20와 쏘렌토가 세계적인 디자인상 수상을 통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신형 i20와 쏘렌토가 독일 국제포럼디자인(International Forum Design)이 주관하는 '2015 iF 디자인상(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의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부문 수송 디자인(transportation design) 분야에서 각각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iF 디자인상은 레드닷,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신형 i20와 쏘렌토는 현대·기아차가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주력 신차다. 이번에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에서 최고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하며 앞으로의 판매 전망을 밝게 했다.

신형 i20는 지난해 10월 파리모터쇼에서 유럽시장에 첫 선을 보인 후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 소형차다. 유럽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을 맡아 유럽 소비자 취향을 반영했으며 현대차의 혁신적인 디자인 플루이딕 스컬프처 2.0을 채용해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차로 탄생됐다.

이와 함께 기아차 쏘렌토는 지난해 8월 국내와 올해 1월 미국에 출시된 후 올해 상반기 중 유럽에 내놓을 예정이다. 기아차의 디자인 철학인 '직선의 단순함'을 바탕으로 강인하고 당당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외관과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실내 공간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김종훈기자

협력사 대금 미리 준다

현대차그룹, 설 연휴 전 2000여개 기업에 1조2300억 지급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4사가 설을 맞아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으로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사진)은 설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2300여억원을 당초 지급일 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혜택을 받는 협력사는 협력사 2000여개는 예정 지급일 보다 최대 일주일 앞당겨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납품대금 조기지급이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임금과 원자재 대금 등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가중되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 3차 협력사들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차 협력사들이 설 명절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왔다. 지난해 설·추석에도 각각 1조300억원, 1조1500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가장 많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자금이 2, 3차 협력사들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협력사 임직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 외에도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18개 계열사 그룹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이 함께 결연시설을 방문해 명절 선물,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추석 연휴 기간 전후를 '임직원 사회봉사 주간'으로 정했다. 그룹 임직원들이 소외이웃과 사회복지단체를 방문해 생필품과 명절 음식 등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김준희기자 fun@metroseoul.co.kr

한화프렌즈 기자단 20명 모집…17일까지 접수

한화그룹은 자사가 진행하는 문화행사와 사회공헌 활동을 체험하고 소식을 전할 한화프렌즈 기자단 2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한화프렌즈 기자단에 선발되면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일반인으로 구성된 한화그룹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한화그룹의 최고경영자인 김승연 회장의 경영철학과 사업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서울세계불꽃축제와 한화클래식 등 음악공연, 해피선샤인 캠페인 등을 네티즌에게 전하는 일이다.

또 한화그룹의 호텔, 리조트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장을 방문해 서비스를 체험하고 복지시설이나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개인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는 사람 중 취재 활동·글쓰기를 좋아하고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성별이나 연령 제한은 없다.

17일까지 한화그룹 공식블로그인 한화데이즈나 한화프렌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기자단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된다.

한화그룹이 진행하는 공식행사에 우선 초청되며, 한화데이즈 기고 활동 등도 펼치게 된다.

선발자 명단은 27일 한화프렌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시작한 한화프렌즈 기자단은 올해로 5기째를 맞는다.

/이정필기자

한화프렌즈 기자단 4기생들이 한화이글스 프로야구팀을 취재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 제공

아시아나항공, 한일교류 일본인 방한단 1400명 유치 일본 자산계 인사 및 산관인 관계자로 구성된 1400여명의 대규모 일본인 방한단이 12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을 마치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니카이 토시히로 일본 자민당 의원(왼쪽 두 번째), 피아니스트 손열음(왼쪽 첫 번째)양과 나카무라 히로코(오른쪽 첫 번째)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 제공

현대오일뱅크,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유가족에 기금

Hyundai Oilbank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전했다고 2일 밝혔다.

강창기 1%나눔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히 생활하시던 분이 사고를 당해 마음이 아프다"며 "곧 태어날 아기와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직원 급여를 재원으로 조성한 1%나눔재단은 사랑의 SOS 기금을 통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있다.

그동안 순직 경찰관과 소방관 화재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 복지시설 등에 기금을 전했다.

/차현정기자 ryman@

윤부근 "삼성 3번째 도약 무기는 사물인터넷"

올해 프리미엄 가전 타이젠 OS 탑재 생활가전 중심 디바이스 구축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이사(사장)가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시대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사장은 3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2015년형 세탁기·에어컨 미디어데이'에서 "에어컨이나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업을 중심으로 자체 개발한 타이젠 운영체제(OS)를 탑재한 IoT 기반 제품 출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020년까지 전 제품에 IoT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TV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크게 성장했다면 다음은 IoT가 될 것"이라며 "제품과 플랫폼을 개방하고 산업과 연계해 IoT 시대에 걸맞는 '인간 중심의' 혹은 '기계가 인간을 배려하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이번에 발표한 세탁기와 에어컨을 시작으로 5월 공개되는 빌트인(붙박이장) TV 제품 'SUHD TV'로 IoT 디바이스 구축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글로벌 가전 시장의 성장률은 3%에 그쳤지만 삼성은 전 제품에 걸쳐 4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세탁기가 17% 정도 성장했다. 올해 글로벌 세탁기 시장에서 최대 1500만대 판매를 목표로 잡았다. 이 중 20%인 300만대 가량은 이 날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액티브 워시'가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액티브워시는 빌트인 싱크 볼 이용해 세서 애벌빨래를 한 후 바로 본 세탁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윤 사장은 "애벌빨래의 수요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으며, 액티브워시는 지난해 4월부터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판매중"이라며 "100% 드럼 시장인 유럽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액티브워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빌트인 가전 시장 공략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몇 년간 공을 들이고 있는 빌트인 가전 시장에서는 올해 냉장고를 비롯한 대부분 제품이 제대로 라인업을 갖췄고 앞으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글로벌 빌트인 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오는 2월 국내를 시작으로 순차 출시되는 봉텀닷 기반 SUHD TV는 두뇌 격인 OS에 타이젠을 적용해 올해 3000만대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다.

점차 성장하고 있는 중국 업체의 도전에 대해 제품의 '격'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중국 가전업체들이 저가형 제품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품격이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격차를 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CE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된데 대해 그는 "지난해 3분기에 TV 패널 공급 문제로 애로사항을 겪었고 CE부문에 속해있는 의료기기 사업과 프린팅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생활가전도 연간 700억~1000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어 이익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가전 부문에 인수 합병(M&A)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전략과 맞아떨어지고 관련된 인수합병이라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5 삼성전자 세탁기 & 에어컨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한 윤부근 CE(소비자가전)부문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정연우기자 ywj@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증권·카드사 제휴 강화

캐시백·요금할인 등 혜택

LG유플러스가 금융 회사들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 신규 제휴, 카드사 혜택 확대 등 금융사와 제휴카드를 잇따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LG유플러스와 동부증권은 LG유플러스 모바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회사 홈페이지에 마련된 이벤트를 신청하고 동부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기본 3만 원을 다음달 15일에 제공받고 해당 계좌에 10만 원을 3개월간 유지하면 1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6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별도 통신요금 자동이체와 같은 조건이 없어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휴카드와 결합하여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동부증권 주식계좌 신규 개설 시 월 거래금액 1억 원까지 주식 수수료 990원만 내는 동부990 정액제를 이용할 수 있다. 주식계좌 개설은 동부증권 영업점뿐 아니라 MG새마을금고에서도 개설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카드사 제휴카드 역시 고객 혜택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 신규 출시되는 'LG유플러스 라이트플랜(LG U+ Light Plan) 신한카드 빅플러스' 제휴카드는 LG유플러스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고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전월 실적 30만~70만원까지는 1만원, 70만원 이상은 1만5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라서 즐거운 우리카드'는 전월 실적 30만~70만원까지는 1만 1천원, 70만~100만원까지는 1만 7000원, 100만원 이상은 2만 3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이상 구간에도 혜택을 제공, 현재 출시돼 있는 여타 제휴카드 중 가장 혜택이 크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더케이손해보험과 멤버십 제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최대 3만원까지 할인 가능하며 멤버십 포인트는 50%만 차감된다.

최순종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담당 상무는 "고객 혜택을 위해 금융사와 타 산업군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제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윤기자

가족 연인 추억 부담없이 남겨라 LG유플러스의 사진 전문 서비스 '아이모리'가 다음달 8일까지 포토북을 주문하면 한 개의 포토북을 더 구매할 수 있는 포토북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LG유플러스 제공

공중전화 부스가 전기차 충전소로

KT 링커스, 서울시내 3곳에 시범서비스

휴대전화 사용이 늘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공중전화부스가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로 재탄생했다.

KT그룹 자회사인 KT 링커스는 서울시 한카와 공동으로 서울시내 3곳의 공중전화부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완료, 3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중전화부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영등포구 당산동 현대아파트, 중랑구 면목동 버스차고지, 도봉구 쌍문2동 우체국 등이다. 이들 충전소는 일단 서울시 '나눔카'의 전기차 셰어링 업체인 한카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충전 시간은 완속 충전기(6kw) 기준으로 6시간 정도다.

공중전화부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버스차고지 입구)

KT는 시범서비스 후 시장 반응을 지켜본 뒤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미 전기차 보급이 확산한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석 KT 링커스 사업운영본부장은 "동네 곳곳에 있는 공중전화부스 인프라를 활용하면 전기차 충전소 부지 고민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중국에는 전기차 보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기자

"이젠 시내면세점"… 유통업계 '2차 전쟁'

서울선 신세계·아이파크몰 등 도전장… 제주선 롯데·신라·부영 각축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롯데면세점 제공

상반기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싼 경쟁이 뜨겁다. 지난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참가한 유통 업체들의 불꽃튀는 '2차전'이 예고됐다.

관세청은 서울지역(3개)과 제주지역(1개) 등 4개 면세점에 대한 사업자 신청 공고를 지난 2일 냈다. 4개 면세점 가운데 서울지역 1곳과 제주지역 면세점 1곳에 대한 입찰은 중소·중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지역 면세점 2곳에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는 6월 1일까지다.

무엇보다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서울 지역은 치열한 혈투가 예상된다. 2000년 이후 시내 면세점이 추가로 허가된 서울은 관광객 수요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부담이 과도한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신세계, 현대산업개발(현대아이파크몰), 현대백화점, SK네트웍스(워커힐) 등 주요 유통 업계 대부분이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제주와 인천공항 면세점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는 제주와 인천공항 면세점에 올인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면세점도 기회가 되면 들어갈 의향은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신라 역시 "신청 기한이 남은 만큼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와 신라는 지난해 12월 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한 제주도 면세점 입찰에서도 부영건설과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나투어 등의 여행업계와 동화면세점 등 중소·중견기업들도 만만치 않은 입찰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면세점 시장 경쟁이 치열한 것은 면세점이 침체된 유통업계에서 안정적 성장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모두 7조5000억원으로 2013년 6조8000억 보다 10.3% 늘어나는 등 최근 해마다 두자릿수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불황 속 백화점이나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업계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면세사업은 거의 유일하게 안정적 성장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만큼 시내 면세점은 최근 입찰 제안서를 받은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수익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kimbora@metroseoul.co.kr

'밸런타인데이' 마케팅 열기 뜨겁다

대형마트, 최대 반값·무료 배송 서비스 … 식음료·패션업계 한정판으로 지갑 열어

유통가가 밸런타인데이(2월 14일) 마케팅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대형마트는 불황여파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할인·무료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손님몰이에 나섰다. 식음료·뷰티·패션업계는 '한정판' 출시로 기념일 특수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롯데마트는 수입 초콜릿 상품을 전년 대비 35% 가량 늘려 정상가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판매한다. 대표 상품인 '시모아 싹실 초콜릿(200g·2개)'과 '페레로 로쉐 T30(375g)'을 각각 9900원, 1만9900원에 내놓는다. 또 직접 포장을 선호하는 여성 고객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낱개 구성 상품도 최대 50% 할인한다. 11일까지 행사 상품은 3만원 이상 구매 시엔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마트는 14일까지 롯데제과·오리온·크라운해태제과 등 동일 회사 초콜릿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5000원 할인 혜택을 준다. 오리온 마켓오 초콜릿 3종은 2개 구매시 1개를 덤으로 주는 2+1 행사를, 롯데 가나미니초코바와 해태 미니자유시간쿠키는 1+1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같은 기간 전국 140개 점포에서 220여 종의 초콜릿을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마테즈 트러플 골드, 마테즈 트러플 실버는 각각 1만원(400g)으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준다.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군장병 친구나 가족에게 무료 배송해준다.

동서 토블론 장미 패키지

◆시즌 한정 메뉴로 눈길

주요 커피전문점들은 밸런타인 시즌 한정 메뉴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25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밸런타인 시즌 전용음료 '라스베리 트러플 모카'를 선보인다. 라스베리 트러플 모카는 다크 초콜릿과 커피 맛이 나는 트러플 소스를 더한 라스베리맛 모카 음료다. 이밖에 슈 안에 커스터드 생크림을 넣은 '하트슈'와 '하트 초콜릿슈' 등 밸런타인 푸드도 내놓는다.

투썸플레이스는 상큼한 딸기를 주제로 '핑크 딸기 생크림 케이크', '트러플초콜릿 무스', '딸기 티라미수' 등 케이크 3종을 화이트데이(3월14일) 시즌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동서는 스위스 삼각 초콜릿 토블론 밸런타인데이 한정판 장미 패키지를 출시했다. 토블론(100g) 밀크·다크·화이트 3종류로 동서몰과 롯데마트·GS왓슨스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뷰티업계, 그루밍족 공략

뷰티업계는 최근 늘고 있는 '그루밍족'을 공략한다.

올리브영은 2월 한 달간 블록 피피 러브 기획세트·질레트 플렉스볼X 올리브영 세트·미장센 맨 그루밍 3종 맨스케어 등의 남성 브랜드 기획세트를 판매한다. 이 기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축복 담은 카드도 증정한다.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랩 시리즈도 12~14일까지 5만원 이상 구매 시 페레로 로쉐 초콜릿(3개입)을 선물로 준다.

패션업계도 밸런타인 마케팅에 동참하고 있다. 컨셉스토어 10 꼬르소 꼬모 서울은 한정 제작한 초콜릿박스를 판매한다. 현재 유럽에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아트 디렉터 크리스튜스가 디자인한 독특한 하트 일러스트 작품으로 장식했다. 10꼬르소 꼬모 청담과 애비뉴엘 매장에서 200개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루이까또즈는 깔끔한 디자인에 루이까또즈 로고를 새겨 넣어 남녀 모두 사용하기 좋은 지갑 세트 3종을 출시한다. /박진영기자 ssing

건강한 '복'을 선물하세요 KGC인삼공사 정관장이 3일 서울 중구 정관장 본점에서 설을 맞아 '당신께 건강은 정관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일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명절 선물세트 13가지를 선보이고 10% 할인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정관장 가맹점, 직영점과 농협,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진행된다. /정관장 제공

농협유통, 조영조 대표이사 취임

농협 하나로클럽·마트의 새 사령탑으로 조영조(사진)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농협유통은 3일 조영조 대표이사(사진)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영조 신임 농협유통 대표이사는 산지유통본부장과 도매유통본부장을 역임해 왔다. 이를 통해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의 목표인 산지, 도매, 소비지를 연결하는 농산물 유통 계열화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되고 있다.

조 대표이사는 취임식에서 "첫번째로 서로 믿고 서로 돕는 조직이 되자"며 인화 단결을 강조했다. 또 "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지역주민과 상생·나눔 하는 기업,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며 "창립 2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신규 점포 출점, 식자재매장 표준화, 축수산 통합구매 등 주요 추진 사업을 완성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조직이 되자"고 강조했다. /김보라기자

① 세빛섬 중 가장 큰 가빛섬
② 빌라드노체
③ 빌라드노체 발코니
④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
⑤ 세빛섬 가는 길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웨딩 공간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탁 트인 한강 조망의 이국적 분위기

호텔과 리조트를 섞어 놓은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 손에 닿을 듯 선상에 있는 듯 탁 트인 한강 조망. 세계 최대 인공섬 세빛섬의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이 로맨틱하고 특별한 웨딩공간으로 뜨고 있다.

500석 규모 화이트 톤 컨벤션홀 단상 뒤편은 전면 유리로 한강과 푸른 하늘이 드러나 보인다. 한강 조망과 함께 부부가 처음 걸어가는 30m의 긴 버진로드, 13m 높이의 천장 파노라마 영상, 환상적인 조명 등 최첨단 시설이 낭만적이고 우아한 예식을 연출한다.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은 웨딩뿐 아니라 평일에는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국제회의, 기업연회 등도 진행되는 특별한 공간이다. 저녁엔 환상적인 한강의 야경도 즐길 수 있다.

컨벤션 바로 옆 고풍스런 인테리어의 빌라드 노체 라운지에선 상견례나 예식후 친구들과의 특별한 애프터 파티를 할 수 있다. 앤틱한 가구와 샹들리에, 진한 오크컬러의 헤링본 나무 바닥으로 유럽적인 정취를 엿볼 수 있다. 어느 다른 곳과 격이 다른 품격이 깃든 공간이다.

위 층 리브고쉬홀(3층)에서는 50~150명 규모의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다. 유리로 지어진 가빛섬은 어디든 한강을 내려다 보이는 가빛섬만의 감각적이고 색다른 낭만을 선사한다. 4층 루프가든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야외 웨딩도 운영할 계획이다.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 웨딩의 가장 큰 장점은 한강 조망의 특별함과 품격에 더해 '여유로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식 시간은 컨벤션이 오후 12시, 5시, 리브고쉬홀은 오후 1시, 6시다. 다른 결혼식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5시간 간격으로 결혼식을 치르도록 한 것. 여유를 배려함이 느껴졌다.

컨벤션과 리브고쉬홀의 하객 1인 식사 가격은 6만~12만원. 컨벤션 사용료·꽃 장식·웨딩 세리모니(특수영상 등) 비용은 별도다. 대관료와 웨딩 세리모니 비용은 각 300만원, 200만원. 인원 수, 일요일 저녁 등 날짜에 따라 대관료는 할인된다. 꽃장식은 각 450만원, 300만원. 포토(150만원), DVD(60만원)+폐백실 이용(50만원)은 선택할 수 있다. 오후 1~2시 사이엔 리무진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빛섬은 3층 규모다. 세 섬 가운데 가장 큰 '가빛섬'과 한강 조망을 갖춘 레스토랑이 있는 '채빛섬',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솔빛섬' 등으로 구성됐다.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이 있는 가빛섬엔 CNN카페, 이탈리안 레스토랑 '올라', '바스터 캅' 등 다채로운 다이닝 서비스와 한강 수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운영중이다. 멋진 한강 뷰에 어울리는 최고의 셰프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만들어 내는 정전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과 캐주얼한 감각의 펍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전석이 창가로 구성됐다. 한강의 환상적인 야경을 조망하면서 다양한 요리와 고급 와인, 엄선된 세계 각국의 생맥주 등을 즐길 수 있다. 바스타 캅은 샤넬의 패션쇼 투 파티 장소로 이용되었던 곳으로 장쯔이 등 스타배우들이 자리를 빛내서 유명해진 곳이다. 바로 옆 채빛섬 2층에는 국내 유일의 수상 뷔페 레스토랑인 '채빛퀴진'도 문을 열었다. 총 300석 규모로 점심 140종, 저녁 160종 이상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 점심 2만9000원, 저녁 5만5000원(VAT 포함)으로 평일 점심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다.

고속버스터미날에서 세빛섬까지는 셔틀버스가 4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6번 출구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20분까지 세빛섬을 순환한다. 세빛섬에선 오후 11시20분에서 오후 9시40분까지 출발한다(오후 4시에서 5시까지는 운행하지 않는다). 차가 없거나 셔틀버스를 놓쳤다면 산책삼아 걸어도 좋다. 걸어서 15분 거리다. 406번과 740번 버스 노선도 세빛섬을 지난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반포대교가 아닌 잠수교를 이용해야만 진입이 가능하다. 약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구비됐다. 세빛섬 운영은 플로섬의 대주주인 효성이 직접 한다. 2019년 4월까지 운영을 맡기로 했다. 문의 (02) 537-2440

/채신은기자 sena...@metroseoul.co.kr

임플란트, 잇몸 건강이 핵심

만성질환자도 시술 가능

1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70세로 낮아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치과를 찾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정보를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빠진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는 틀니와 임플란트가 있다. 그중 임플란트가 각광받는 이유는 씹는 힘 의 차이 때문이다. 틀니는 씹는 힘이 자연치아의 10~20%에 그치는 반면 자연치아에 가까운 임플란트는 80~90%의 씹는 힘을 낸다.

또 임플란트 시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잇몸을 절개하는 방법과 잇몸뼈 위에 구멍을 뚫어 시술하는 방법이다. 치아가 빠진 부위의 잇몸을 째면 잇몸뼈가 나오는데 여기에 임플란트를 세우는 것이 절개 방식이고 잇몸뼈 위에 구멍을 뚫는 방식은 잇몸 조직에 맞춰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임플란트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잇몸 건강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도 잇몸이 건강하다면 시술이 가능하다. 만약 잇몸이 약하거나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연공뼈를 이식해 단단히 고정시킨 후 임플란트를 하면 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고혈압 환자는 적절한 진정요법 후 시술을 받아야 하며 혈압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내과와 협진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혈액순환을 위해 복용하는 약물은 지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술 5일 전부터 중단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오전에 시술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강혜모 강남 룡플란트치과 원장은 "만성 질환 등이 있어도 각 질환에 맞는 준비를 한다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 다만 임플란트는 꼼꼼한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안전보건공단 제공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하자"

안전보건공단 결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이 지난 2일 울산시 중구 소재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소속기관장 회의'를 열고 2015년도 경영목표 달성과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단의 최고 경영목표인 '사고사망만인율 시고재해율, 업무상질병만인율 5% 감소 달성'을 위한 지역별 재해 예방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청렴한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이영순 공단 이사장과 전국 기관장 등 쉰명은 최근 공단이 수립한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키로 결의했다.

윤양배 공단 상임감사는 "공단 경영진과 간부직원의 솔선수범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설 선물세트 본판매 시작

2만~30만원 다양한 가격대 상품 최대 반값
한우·양념갈비 총 40종… 중저가 실속형 확대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4일부터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최대 50% 할인율을 제공하는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강술래가 마련한 선물세트는 2만원대 가공식품부터 30만원대 한우세트까지 총 40여 종으로 선택폭을 넓혔다.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데다 졸업시즌과 겹친 점을 고려해 중저가 실속상품을 확대했다.

먼저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고 구수하며 상온보관이 가능한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500ml·5팩·15인분)는 3만8800원, 중용량세트(500ml·7팩·14인분)는 3만6000원에 판매한다.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법성포보리굴비세트(10마리)는 11만원, 웰빙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는 5만16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매장 인기품목인 한우불고기1호(1.5kg)는 6만원, 한우불고기2호(2.25kg) 8만원, 슬래양념1호(16대) 10만원, 슬래양념2호(24대)는 14만원에 판매한다.

슬래실속2호(슬래양념8대+한우불고기 1kg)는 15만원,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5kg) 14만원,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등심 각 0.7kg) 15만원, 한우찜갈비세트1호(2.4kg·냉동)는 19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박지원기자

나뚜루팝, 깜찍한 '헬로키티 초콜릿'

아이스크림 전문점 나뚜루팝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헬로키티 초콜릿'을 출시했다.

헬로키티 캐릭터를 그대로 표현한 제품으로 시각적인 즐거움과 초콜릿의 달콤함을 즐길 수 있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가격은 2000원.

또 28일까지 멀티컵 이상 구매 시 헬로키티 초콜릿을 1000원에 제공하고 헬로키티 초콜릿 10봉을 깜찍한 패키지로 구성한 '발렌타인 [illegible] 에디션'을 선보인다. 가격은 1만4000원이며 매장당 5개 한정 판매한다.

서울여대, '인성평가 심포지엄' 개최

주요 대학 대입전형 인성평가 우수사례 발표

서울여대(총장 전혜정)가 4일 오전 11시30분 5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각 대학의 인성평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인성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서울여대와 서울교육대, 포스텍 등 주요 대학이 참여하며 이들은 2015년도 입시에 적용한 '대입전형 인성평가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향후 대입전형에서의 인성평가 발전방안도 논의된다.

심포지엄에는 고등학교 교사나 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서울여대는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인성교육인 '바롬인성교육'을 개교 이래 꾸준히 실천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학 최초로 '2014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의: (02)970-7993

/황재용기자

스키장 다녀온 후 어깨통증 느낀다면…

회전근개파열 의심 해봐야

막바지 겨울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스키장이 연일 붐비고 있다. 스키와 스노우보드는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데 특히 스노우보드를 타다 어깨 등을 다쳐 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다.

사실 스노우보드는 스키보다 무겁고 넓은 보드에 두발이 묶인 채 폴대 없이 팔로만 균형을 잡기 때문에 잘못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게 된다. 뒤로 넘어질 때는 손목이나 팔꿈치를 다칠 수 있고 앞으로 미끄러지면 어깨 등에 부상을 입기 쉽다.

그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상은 어깨관절 손상으로 회전근개파열이 대표적이다. 어깨뼈를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이 파열되는 것으로 통증과 열감이 나타난다. 또 팔의 근력이 약해지고 물건을 들 때 물건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특히 초기에는 통증이 잠시 줄어들기도 해 사람들이 단순 근육통이나 추유증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치료를 미루면 손상이 악화될 수 있다.

손상이 심하지 않으면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약물이나 주사를 이용하기도 하며 운동으로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손상 정도나 통증이 심하다면 관절내시경을 통해 파열된 힘줄을 봉합해야 한다.

손경모 웰튼병원 관절센터 소장은 "회전근개는 자연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는 전문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직장서 살아남으려면 '샐러던트' 되라

실용서·자격증 관련서 인기… 직장인 생존 단기 강좌도 눈길

여의도 최대 복합센터 IFC몰에 있는 한 대형서점은 인근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명소다.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이용해 공부하려는 직장인들로 붐비는 것이다. 여의도 증권사에 다니는 김모(35)씨는 "금융권이 워낙 불황이라 미래가 고민인 직장인들이 많다"면서 "서점에서 주로 어학 서적과 실용서를 읽는다. 특히 해마다 심어 닥치는 구조조정과 점점 짧아지는 근속 연수를 이겨내려면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을미년 직장인 키워드는 '독해야 산다'다.

예년보다 더 쌀쌀한 경기 한파가 을미년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부하는 직장인 '샐러던트'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유명 기업에 합격한 신입사원 전모(27)씨는 "취업문을 뚫어서 한동안 안심했는데 우리 회사 평균 근속 연수가 7년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취업이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이더라. 생존과 이직을 위해 구직 시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위기 의식 속에 실용서는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직장 드라마 '미생'이 흥행하면서 사회 생활 자세를 다루는 서적도 다수 출간됐다.

책PR 이나영광 대표는 "출판 트렌드를 보면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자기계발 의지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시장이 꾸준히 진화하는 중"이라며 "인사발령 시즌인 연말연시에는 경제경영서가 성수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모바일 메신저 네이트온은 자격증 교육기업으로 유명한 에듀윌과 손잡고 에듀윌의 유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샐러던트를 위한 실용 무료 특강도 진행한다. 네이트온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황유진 대리는 "에듀윌 제휴 이벤트 반응이 좋다. 네이트온의 직장인 이용자 비율이 높고,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열망이 강하다는 점이 흥행 요인"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겨냥 단기강좌도 샐러던트 붐에 일조했다. 단기강좌과정 마이크임팩트스쿨은 당초 기대와 달리 직장인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직장 생존 강좌를 대폭 늘렸다. 초기에는 취미 생활 위주의 수업이 많았지만 점차 프로보살, 회계학, 스피치 등 직장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주제의 비중이 커졌다.

마이크임팩트스쿨에서 사용하는 커피 잔에는 '퇴연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란 문구가 함께 새겨져 있다. 한동헌 마이크임팩트 대표는 "재취업을 꿈꾸는 샐러던트 회원이 많다는 것에 착안해 컵 디자인을 독특하게 했다"면서 "컵만 따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마이크임팩트스쿨의 당초 예상 고객층은 20대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샐러던트 비중이 늘면서 강좌 주제를 직장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대폭 수정했다. 학생 연령대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남녀 비중이 3대7 정도 되지만 남자 샐러던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샐러던트의 증가 현상은 공부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워진 세태의 이면"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중견·중소기업 취업문 닫힌다

올 채용 규모 0.3% 감소 대기업 신규만 1.9% 증가

중견·중소기업의 취업문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

문턱이 높은 대기업 말고는 구직자들이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1700여 개 상장사 중 조사에 응한 706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대졸 신입사원 정규직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채용규모가 3만 9261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0.3% 감소한 수치다.

특히 중소기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대기업은 66.9%에 달한 반면 중견기업은 58.7%, 중소기업은 47.4%에 그쳤다. 채용계획이 아예 없는 기업도 중소기업(25.2%), 중견기업(13.8%), 대기업(11.6%)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규모도 대기업만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만1434명을 뽑은 대기업은 올해 3만204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1.9% 늘어난 수치다. 반면 중견기업은 3.4%, 중소기업은 14.0%나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5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2% 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건설·금융 채용 증가할 듯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인원을 뽑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의 채용 규모도 0.1%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유가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은 석유 화학 업체의 신규 채용은 17.4%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력 채용 비율이 높은 정보통신 업종도 8.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신규 채용 감소폭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적은 것은 다소 희망적"이라며 "특히 전년보다 많은 기업이 채용 수립 계획을 세운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유리기자 kimlee@

"청년들 창업에 나서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2일 오후(현지시간) 홍콩섬 완차이 홍콩 컨벤션전시센터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마 회장은 이 강연에서 "홍콩이 20년 후에도 부동산업에 의존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청년층의 변화와 창업을 당부했다.

/AP 연합뉴스

일정 학점만 넘기면 무관

신입사원 평균 스펙 분석

상반기 공채가 다가오면서 스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취업 문을 뚫은 사람들의 스펙은 어땠을까.

3일 취업포털 사람인의 '신입사원 평균 스펙 및 평가방식'에 따르면 학점은 B+이면 합격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공채 합격자의 평균 학점은 3.5점으로 지난해 상반기 평균인 3.6점에서 소폭 낮아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3.3~3.6점 미만(30.8%), 3.6~3.9점 미만(27.3%), 3.0~3.3점 미만(25.9%), 3.9~4.2점 미만(12.6%) 등의 순이었다. 학점 평가방식은 절반 이상(50.4%)이 '일정 학점만 넘기면 동일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자격증이 있는 신입사원의 비율은 2명 중 1명(평균 56%)인 것으로 집계됐고, 1인당 평균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전공·직무 관련 자격증'(69%,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이외에 'OA 관련 자격증'(46.4%), 'IT 관련 자격증'(16.7%),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7.9%) 등이 있었다.

한편 토익 점수는 예상보다 반영 비율이 낮았다. 영어성적을 요구한 기업은 절반에 못 미치는 44.8%였다. 요구 방식도 가장 많은 43.8%가 '영어점수만 보유하면 종류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윤희기자

드라마선 마마보이, 실제론 무뚝뚝남

'피노키오' 끝낸 배우 김영광

배우 김영광(28)이 '오해의 아이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영광은 2013년 종이라 스키니 말 실수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고 논란을 통해 느낀 점을 말했다.

"오해의 아이콘으로 등극했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렸고 시간도 많이 지났잖아요. 행동과 말을 조심하도록 만든 일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한 편이거든요. 독자 100명을 앞에 두고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오해받을까봐요. 동영상 인터뷰도 편집이 걱정이에요. (웃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야'라면서 침울했어요. 집에서 이틀 동안 안 나오고 배달 음식만 시켜먹었죠. 힘들고 슬펐는데 지인들이 위로해줬어요. 논란 이후 얼마 안 돼 팬사인회가 있었는데 가장 무서웠죠. 근데 팬이 오히려 '자기는 신경 안 쓴다' '힘내라' 이렇게 응원해줬어요. 고맙죠. 팬을 보면서 '더 멋있어져야겠다'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해요."

김영광의 첫 팬은 그를 우쭐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모델로 활동하던 어느 날 어떤 분이 뛰어오더니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아세요?'라고 물었죠. 점점 팬이 많아졌고 백스테이지에서 사진을 찍었죠. 그때 정말 좋았어요. 저를 우쭐하게 만들었죠. 고맙고 동료들에게도 자랑했고요. 근데 오해의 아이콘이 되면서 (팬이) 확 줄었죠. (웃음) 고마운 존재인데 여전히 팬을 만나면 뭘 해줘야 할 지 모르겠어요."

모델로 데뷔한 김영광은 KBS2 '그들이 사는 세상'(2008)으로 배우 신고식을 치렀다.

8년 차 배우인 그는 지난달 종영된 SBS '피노키오'에서 철없는 재벌가 아들 서범조를 연기했다. 실제 김영광은 극 중 마마보이 캐릭터와 전혀 다른 아들이었다.

"무뚝뚝한 아들이에요. 말도 살갑게 하지 못하고요. 2살 위 누나와는 고등학생 때 많이 싸워서 이후에는 서로 말을 많이 안 했죠. 누나가 말만 하면 뭐라고 해요. 누나들은 기분 나빴던 거 같아요. (웃음) 제가 연기를 시작하고부터는 누나가 잘 해주죠. 그리고 저 조금 있으면 삼촌이 됩니다. 누나가 얼마 전 임신했어요."

작품에서 코믹을 담당하며 연기 변신을 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냈던 '어떤 장면'을 연기하기 싫었다고 고백했다.

"코믹이 항상 (대본에) 써 있어서 어떻게 표현할 지 고민했죠. 근데 정말 하기 싫었던 장면이 있어요. 최인하(박신혜)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자 어머니가 소개팅녀로 수지를 추천하는 장면이요. 수지 사진을 보면서 '우와'라고 해야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최인하에 대한 서범조의 마음이 가벼워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피노키오'로 지상파에서 처음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다.

"지상파가 지닌 무게감이란 걸 '피노키오'에 출연하면서 느꼈어요. 연기적인 한계에 부딪힐 뻔했죠. 저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 있거나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 굳기 시작해서 연기가 안 되더라고요. tvN '아홉수소년'(2014)을 할 때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아직 스스로를 완벽히 조절하진 못해요. 저는 엄청난 스타도 아니고 배우로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지 못했어요. 그래도 길게 잡아서 5년 안에 지상파 주연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효진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김선주(라운드테이블) 디자인/박은지

말 실수로 한때 '오해의 아이콘' 등극
5년 안에 지상파 주연 하고 싶어요~

star bag

고현정·조인성과 한지붕 쓴다

배우 정은채가 고현정·조인성이 속한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전속 계약했다.

2010년 영화 '초능력자'로 데뷔했다.

'무서운 이야기'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 '우리 선희' '여자들' '닥터 프로스트'로 꾸준히 활동했다. 2013년 자신의 이름을 딴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美 4개 도시 쇼케이스 개최

가수 에릭남이 미국 4개 도시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오는 20일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22일 애틀랜타, 27일 댈러스, 다음달 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미국 쇼케이스 VVIP 티켓은 이미 매진됐다.

태국서 근황 공개 '깜찍+상큼'

배우 박신혜가 태국에서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했다.

박신혜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날씨가 엄청 좋아요. 태국의 겨울은 따뜻하면서도 시원하네요. 새로운 광고 기대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따뜻한 햇살 아래 깜찍하고 상큼한 모습이다. 큰 눈과 깨끗한 피부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위클리 영화의 발견' 내레이터

배우 전석호가 영화채널 스크린 '위클리 영화의 발견-신작의 발견' 내레이터로 발탁됐다.

전석호는 지난해 tvN '미생'에서 하 대리 역으로 드라마·연극·영화계 대세 배우로 자리 잡고 있다.

'위클리 영화의 발견'은 오는 14일 정오 방송된다.

국제시장

강남 1970

쎄시봉

힘든 현실이 불러온 복고 열풍

'국제시장' '강남 1970' '쎄시봉' 추억·향수 자극…영화팬에 공감대 얻어 인기

2015년 대중문화는 복고 열풍에 빠졌다. 극장가에서도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의 한 순간을 담은 영화들이 큰 인기다.

그 주역은 바로 '국제시장'과 '강남 1970'이다. 두 영화 모두 한국 현대사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어느 영화가 과거를 다루고 있는 태도는 미묘하게 다르다. 그 차이가 영화 흥행 성적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국제시장'은 과거를 추억과 향수로 가득한 시절로 바라본다. 한국전쟁, 파독광부, 베트남전, 이산가족 찾기 등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영화는 그 힘든 시절에도 변하지 않던 가족애를 통해 과거의 그리움을 강조한다.

반면 '강남 1970'의 과거는 현재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서울 강남의 개발이 본격화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정치와 폭력이 결탁하는 과정을 통해 산업화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날카롭게 바라본다. 그 냉철한 태도는 여전히 개발과 성장만을 화두로 삼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를 향하고 있다.

최근 복고가 유행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이 힘들고 버겁기 때문이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현실을 잊기 위해 사람들은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느끼게 하는 문화 콘텐츠를 찾고 있다. '국제시장'에 비해 '강남 1970'이 폭발적인 흥행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오는 4일 개봉하는 '쎄시봉'은 이들 영화에 이어 극장가 복고 열풍에 정점을 찍을 작품이다. 1970년대를 풍미한 음악 감상실 쎄시봉을 무대로 한 서툴지만 순수했던 첫사랑의 이야기가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쎄시봉'은 '국제시장'처럼 과거를 추억과 향수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또한 '강남 1970'처럼 당시의 어두운 현실도 외면하지 않는다. 영화는 사랑과 낭만으로 가득했으나 동시에 권력의 억압이 공존했던 1970년대 이야기를 첫사랑의 아련함으로 담아냈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요소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데뷔 40주년…'영원한 오빠' 전영록

내달 8일 기념 콘서트…"두 딸과 한무대 희망"

'영원한 오빠' 가수 전영록(61·사진)이 데뷔 40주년을 맞이했다.

전영록은 다음달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그는 공연에 앞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뷔 40주년 소감을 밝혔다.

그는 "흑백TV 시절부터 가수 생활을 시작했다. 후배들이 가끔 오래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을 묻는데 사실 비결은 따로 없다"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호흡하며 지낸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면 '신곡 발표 왜 안하느냐', 'TV에 왜 자주 나오지 않느냐' 등의 질문을 받는데 신곡을 발표하기엔 기존 곡들도 다 부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또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선배가 되고 싶지 않다.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노래하니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전영록은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의 노래는 물론 이자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김희애의 '나를 잊지 말아요',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등의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했다.

그는 가수였던 어머니 백설희로부터 받은 음악적 재능을 두 딸 보람과 람에게 물려줬다. 현재 이들은 각각 걸그룹 티아라와 다유닛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번 공연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두 아이에게 연락했다. 보람이는 지금 중국에 가 있어서 같이 무대에 서긴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둘째(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돌이켜보면 모친에서도 내게 공연을 같이 하자는 말씀을 한 번도 안하셨다. 나 역시도 딸들에게 부탁하는 게 어려웠다. 내가 말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재민기자 larakim@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감동 다시한번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무대…울산·광주·부산 공연 이어져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유럽을 대표하는 극작가 뤽 플라몽동과 작곡가 리카르도 코치안테 등이 뭉쳐 만든 대작이다.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집시여인 에스메랄다를 사랑한 꼽추 콰지모도의 숙명적인 사랑을 담고 있다.

2005년 첫 내한공연 당시 빅토르 위고의 완벽한 문장을 한 편의 시와 같은 노래로 완성해 세종문화회관 최단 기간 최고 관객수를 기록하며 국내에 프랑스 뮤지컬 신드롬을 일으켰다. 'Le Temps des Cathedrals(대성당들의 시대)', 'Belle(아름답다)', 'Vivre(살리라)' 등 주옥 같은 넘버는 지금까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초연 1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오리지널 팀이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내한공연 중이다. 한국 초연 당시 콰지모도를 열연했던 맷 로랑, 거리의 음유시인 그랭구와르로 분한 리샤르 샤레스트, 집시 우두머리 클로팽을 연기한 가르디 퓨리, 로디 줄리엔느 등이 뭉쳐 10년 전의 감동을 재현한다.

매혹적인 에스메랄다 역은 1만5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뮤지컬 '로빈훗'와 '마리앙느' 역을 꿰찬 스테파니 베다와 프랑스의 뮤즈 미리암 브루소가 맡았다.

한국 팬의 눈을 사로잡았던 현대무용, 아크로바틱, 발레, 브레이크 댄스 등 화려하고 역동적인 안무 역시 그대로다. 특히 국내 실력파 현대무용수와 비보이들이 군무에 투입돼 볼거리를 좀 더 극대화했다.

한국공연은 오는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고 이후 울산, 광주, 부산 공연을 이어간다. 문의 02)541-6236 /김민준기자 mkim@

김정은 7년 만에 친정 복귀

주말극 '여자를 울려' 홍길동 아줌마 연기

배우 김정은(사진)이 MBC 새 주말극 '여자를 울려'에 출연한다. KBS2 '울랄라 부부' 이후 3년 만에 안방 컴백이다.

김정은은 '여자를 울려'에서 덕인 역을 맡았다. 전직 강력반 여형사 출신이다. 외동 아들의 죽음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이 다니던 학교 앞에서 간이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잊지 않으려 한다. 그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지켜주는 홍길동 아줌마이기도 하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실체와 갈등하며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을 연기한다.

특히 김정은은 MBC 공채 25기로 '종합병원2'(2008) 이후 친정 복귀 첫 작품이다.

김정은은 "오랜만에 MBC로 인사 드리게 돼 기쁘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여자를 울려'는 '금나와라 뚝딱' 하청옥 작가의 재회, '구암 허준' 김근홍PD가 함께 제작한다. '장미빛 연인들' 후속 작으로 4월 중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

사랑에
빠진
나는
호구
입니다

2월 9일 [월]
밤 11시
tvN
첫 방송

매주
[월-화]
방송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유이 · 최우식 · 임슬옹 · 이수경 · 기획 | tvN · 제작 | MI · 연출 | 표민수 · 박찬율 · 극본 | 윤난중

미드필더 김두현 성남 이적 "김학범 감독과 영광 재현"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김두현(33)이 전성기를 보냈던 성남으로 돌아간다.

성남FC는 3일 수원 삼성에서 뛰는 김두현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김두현은 2007년 이후 8시즌 만에 성남으로 복귀하게 됐다.

2001년 수원 삼성에서 프로로 데뷔한 김두현은 2005년 성남 일화로 옮겨 화려한 시절을 보냈다. 3시즌간 정규리그에서만 17골 9도움을 올리며 정규리그 우승(2006년), 준우승(2007년) 등의 성과를 냈다. 전성기 시절 사령탑이던 김학범 감독이 다시 성남의 사령탑을 맡아 8년 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두현은 성남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006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출전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브로미지 앨비언에도 몸담았다.

김두현은 성남시청에서 열린 입단식에서 "김학범 감독님과 다시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고참 선수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감독은 "김두현의 영입은 내 생각보다는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지를 보인 결과"라며 "시민구단의 롤모델이 되겠다는 목표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신화준기자

김두현

'폭력 축구' 우즈벡 공식 사과

"해당 선수 엄벌하겠다"

우즈베키스탄축구협회가 킹스컵에서 자국 대표팀이 한국에 저지른 폭력적인 플레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우즈벡축구협회로부터 우즈벡 선수들의 비스포츠적 행위에 대한 사과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폭력 사건은 지난 1일 태국 나콘랏차시마에서 열린 22세 이하 대표팀 간 국제대회인 킹스컵에서 벌어졌다. 당시 우즈벡 선수는 공중볼을 다투다가 강상우(포항 스틸러스)를 날아 차기로 쓰러뜨려 퇴장당했다. 후반 막판에는 우즈벡 2번 선수가 심상민(FC서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레드카드를 받았다.

폭력적인 장면이 경기 후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축구 팬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축구협회는 "우즈벡협회는 1일 킹스컵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며 "해당 선수들은 우즈벡협회와 소속 구단으로부터 엄중 징계에 처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전했다.

이어 "우즈벡협회는 사과 공문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양해를 구하며 양 협회의 우호적인 관계가 앞으로도 유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프로야구 심판들이 경기도 이천 LG 챔피언스파크에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 반개 높아진 스트라이크존

프로야구 달라지는 것

심판위원들, 구단 스프링캠프 이동… 새 규정 적응 훈련

국내 프로야구 심판진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스프링캠프로 향한다.

국내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현재 자체적으로 달라진 스트라이크존과 새 규정을 적용해 훈련하고 있다. 평가전 혹은 라이브 피칭 등으로 실전 훈련에 돌입했거나, 다음 주부터 실전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의 '판정'과는 다를 수 있다. 스트라이크존이 달라지고 경기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2015시즌 새로운 규정에 대한 빠른 적응은 시즌 초반 순위 다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상훈 KBO 심판위원장은 "4명의 심판이 6일 미국으로 떠나고, 다른 심판들은 11일 일본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떠나는 4명의 심판은 1차 스프링캠프를 애리조나에서 치르는 팀들을 방문해 실전 분위기를 만든다.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 등이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하면 4명의 심판은 NC 다이노스의 로스앤젤레스 훈련에서 실전 감각을 키운다.

도 심판위원장 등 다른 심판위원은 오키나와와 가고시마에서 평가전 등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선수들에게 알린다. 이 과정을 통해 심판위원들도 새 규정을 몸으로 익힌다.

2015 프로야구는 스트라이크존을 공 반 개 정도 높이기로 했다.

또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다섯 가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닝 중 투수 교체시간을 2분45초에서 2분30초로 줄였고, 타자 등장 배경음악도 10초로 제한했다.

타자의 불필요한 타임 요청을 불허하고,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최소 한 발을 배터 박스 안에 두는 강제 조항도 넣었다. 볼넷이나 몸에 맞는 공이 나오면 타자가 뛰어서 1루로 불구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정연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이청용 EPL로 돌아왔다

크리스털 팰리스 이적… 3년 계약 이적료 17억 가량

CRYSTAL PALACE F.C. OFFICIAL WEBSITE

Lee Chung-Yong Moves South

크리스털 팰리스 공식 웹사이트에 실린 이청용의 이적 소식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볼턴 소속 이청용(27)이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로 둥지를 옮겼다.

3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볼턴은 이청용의 이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18년 6월까지 3년이다. 이적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전날 영국 데일리메일은 크리스털 팰리스가 100만 파운드(약 16억5000만원)에 볼턴에서 이청용을 데려오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이청용은 5년6개월간 몸담은 볼턴과 작별했다.

프로축구 K리그 FC서울 소속이던 이청용은 2009년 7월 당시 프리미어리그 볼턴에 입단, 한국인 7호 프리미어리거가 됐다. 그해 9월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폭발시키는 등 빠르게 팀의 주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11~2012시즌 직전 정강이뼈를 골절 당하며 그해 프리미어리그에서 교체선수로 2경기에 나서는 데 그쳤다. 결국 볼턴은 챔피언십으로 강등됐다.

볼턴은 2012~2013시즌, 2013~2014시즌 연달아 승격 목표를 이루지 못해 계약 기간을 반년 남기고 이청용은 볼턴을 떠났다.

볼턴에서 이청용은 195경기에 나서 20골을 터뜨렸다.

런던을 연고로 하는 크리스털 팰리스는 1905년에 창단돼 구단 역사가 100년이 넘은 팀이다. 2004~2005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8위에 머물러 리그 챔피언십(2부리그)으로 강등됐다가 2013~2014시즌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했다. 지난 시즌 11위에 올랐고 이번 시즌에도 20개 구단 가운데 13위를 달리고 있다.

이청용은 윌프리드 자하, 제이슨 펀천 등과 오른쪽 측면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이한준기자

봄맞이 준비 '한창' 춘을 하루 앞둔 3일 제주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에서 주민들이 띠로 엮은 이엉을 이으며 봄 맞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총기 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재판부 "잔혹하고 치밀한 범죄" ··임 병장 측 "항소하겠다"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를 겨눈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 대표는 "지난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이 가슴 아팠다"며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임 병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결심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정신감정 결과 임 병장은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받았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홍아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서울 찾은 외국인 관광객 3명 중 1명은 중국인이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3명 중 1명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포그래픽스 제122호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가장 많이 찾은 곳은?'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148만명으로 2010년 706만명에서 연평균 12.9% 증가했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거주국은 중국(35.9%)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일본(24.2%), 미국(6.5%), 대만(6.0%) 순이었다. 2012년까지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3년 중국인 관광객이 그 수를 추월한 것이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장소는 명동(72.8%)이었다. 다음으로 동대문시장(56.6%), 고궁(39.1%), 남대문시장(32.8%) 등이 뒤를 이었다. 신촌·홍대 주변, 코엑스, 가로수길, 청담동·강남역 일대도 최근 인기가 상승했다.

쇼핑 장소로도 명동이 5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내면세점(32.3%), 동대문시장(30.7%), 백화점(27.2%) 등의 순이었다. 일본(61.0%)을 포함한 다수가 명동을 가장 선호했고 중국은 시내면세점(59.5%), 중동은 동대문시장(41.9%), 미국·캐나다·러시아는 백화점(30.1%·34.9%·35.3%)을 가장 선호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육아휴직 하면 건보료 60% 깎아준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 가입자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1년 이내에서 건보료의 60%를 경감받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1년 넘게 하더라도 휴직자 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illegible]기자

한글의 아름다움과 만남 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조명한 '한글일일달력전'이 열렸다. 전시회는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

인사

■ 대법원

<전보> ◇ 고등법원장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 ▲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 ▲ 한종기 서울동부지법원장 ▲ 윤성근 서울남부지법원장 ▲ 윤동선 서울북부지법원장 ▲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 ▲ 김인구 부산지법원장 ▲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 김상국 대구지법원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조병현 ▲ 최재형 ▲ 유완주 ▲ 황한식 ▲ 성백현(이상 서울고법) <복사> ◇ 고등법원장 ▲ 박홍대 부산고법원장 ▲ 최우식 대구고법원장 <전보> ◇ 고등법원 부장판사 ▲ 권기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 김시철 ▲ 여미숙 ▲ 김승조 ▲ 김흥석 ▲ 이승련 ▲ 서태환 ▲ 이원형 ▲ 박준헌 ▲ 황병식 (대법원장 비서실장) ▲ 신광렬 ▲ 오석준(이상 서울고법) ▲ 유상재 ▲ 김주호(이상 대전고법) ▲ 천용달 ▲ 이기광 ▲ 진성철 ▲ 이범균(이상 대구고법) ▲ 손지호 ▲ 박영재 ▲ 이영진 ▲ 김동윤(이상 부산고법) ▲ 김흥준 ▲ 홍동기 ▲ 노정희 ▲ 황상훈(이상 광주고법) ▲ 한규현 ▲ 이원석 ▲ 김환수(이상 특허법원) ▲ 김용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 김흥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 이동원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 임성기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 문화체육관광부

◇ 국장급 교육훈련 파견 ▲ 중앙공무원교육원 박채철

■ 한국장학재단

◇ 2급 교육파견 ▲ 국방대학원 파견 유영철 ◇ 3급 교육파견 ▲ 한국금융연수원 파견 안만섭

■ 서울대학교

▲ 경영대학 교무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박상욱 ▲ 경영대학 학생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 행정학과장 김화훈 ▲ 경영대학 기획부학장 오정석

■ 국민대

▲ 경상대학장 송지용 ▲ 삼림과학대학장 김영균 ▲ 성곡도서관장 최준수

■ IBK투자증권

◇ 승진 <이사> ▲ 리스크관리팀 도천길 <부장> ▲ 리테일채권팀 전유순 ▲ 법인영업1팀 안정준 ▲ 프로젝트금융팀 송현석 ▲ 컴플라이언스팀 김주열 <차장> ▲ 광주지점 오행동 ▲ E 비즈영업팀 박범희 ▲ OTC파생팀 박정현 ▲ RCC상품팀 최민직 ▲ 프로젝트금융팀 정도영 ▲ 상품솔루션팀 정문숙

■ 전력거래소

◇ 전보 ▲ 전력경제연구실장 문경섭 ▲ 기획처 전략기획팀장 배병옥 ▲ 기획처 성과관리팀장 정연조 ▲ 기획처 KPX교육센터장 최운재 ▲ 경영지원처 총무팀장 하상준 ▲ 경영지원처 재무경영팀장 조익균 ▲ 현업지원처 안전관리팀장 오진수 ▲ 전력계획처 전원계획팀장 김홍근 ▲ 전력계획처 장기수급분석팀장 류성호 ▲ 전력계획처 기후환경전략팀장 곽동신 ▲ 시장개발처 시장제도팀장 조장욱 ▲ 시장개발처 수요시장팀장 김상일 ▲ 시장운영처 고객지원팀장 박유조 ▲ 계통운영처 수급계획팀장 김대훈 ▲ 정보기술처 정보기술팀장 손윤재 ▲ 정보기술처 계통시스템팀장 이진수 ▲ 정보기술처 시장시스템팀장 김완출 ▲ 중앙전력관제센터 수급운영팀장 한승구

부고

▲ 이찬수(한농식품 회장)씨 별세, 이정민(하늘 대표)·주현(대성횡외과 원장) 자경(스파크 인터내셔널 상무) 재경(캐나다 피플포트교회 담임목사)씨 부친상, 박은재(이연게이 대표)·홍다혁(일원원 행사선과 과장)씨 시부상 = 1일 오후 11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4일 오전 11시 02-2227-7547

▲ 박형옥 씨 별세, 우대하(MBC 보도국 위성편집부장) 씨 장인상 = 2일 2일, 서울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일 오전 11시 02-870-2977

▲ 권학자(한국흡연결의조합 이사장)씨 모친상 = 3일, 경기도 평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VIP 1실, 발인 5일 오전 7시 031-312-5004

▲ 조병우씨 별세, 조상형(부성텍스텍 대표)씨 부친상, 이종화 기획재정부 동림해당 예산과장 장인상 = 3일 계백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5일 오전 10시 053-620-4470

▲ 박기권씨 별세, 박덕석(농협 전북본부장)씨 부친상 = 2월 3일 부안효심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10시 063-581-1004

<공무원>

서울시의회 채용 비리 의혹

의원 입김 난무…'컴맹'도 연줄로 합격

서울시의회가 올해 처음 사무처에 시간제 임시직을 대거 뽑은 가운데 현직 시의원 등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무자격자들이 다수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이 거의 없는 지원자들이 부적절하게 채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회 내부에서 자조적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해 12월 1년 임기의 시간제 임시직 라급(6급) 50명을 채용, 합격자들은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식 임용됐다.

정식 임용된 임시직 50명은 일반 행정직 30명, 전문성을 요하는 입법 분석요원 20명 등이다. 임시직이지만 이들의 연봉은 수당까지 합하면 3000만원이 넘는다.

한 시의원은 "합격자들을 보면 입법분석요원임에도 컴퓨터 기초도 제대로 모르거나, 담당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고서는커녕 기본적인 일도 부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원의 절반 가량이 현직 의원들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 채용됐다는 점이다.

채용 위탁을 맡았던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의 자료를 취합하면 입법조사관으로 채용된 A씨는 현직 시의원의 딸이며 업무 경험은 전임 의장 때 의장실에서 잠시 일했던 것밖에 없다.

B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만 했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입법분석요원으로 뽑혔다. 또 중앙당 당직자, 현직 의원의 선거운동원 등 전문성 없이 연줄 만으로 채용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일부 의원의 입김으로 자격 미달자들이 채용되면서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시의회에서 수년간 관련 업무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면접에서 줄줄이 낙방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시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의원들의 입김으로부터 시의회 사무처가 독립적일 수 없는 현실"이라며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다세대주택 균열…주민 대피소동 3일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주민들은 주변 도로 포장공사 탓에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이 전자담배 상습 절도

200만원어치 털어 중고 사이트에 팔아넘겨

전자담배를 훔쳐 판 중학생들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심야 시간에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이모(15)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김모(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3명은 올해 들어 담뱃값 인상의 여파로 전자담배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뉴스 등을 보고 전자담배 가게를 털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관악구 일대 전자담배 판매점 4곳을 돌며 20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와 액상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질렀던 판매점에서 다시 전자담배를 훔치려고 유리창을 깨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자담배 중 일부는 지인에게 팔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담배를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담배를 산 사람들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혹한기를 이겨라 3일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육군 6사단 장병들이 이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SK브로드밴드 고발

"기사 명의 도용 영업활동"

희망연대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 협력사 소속 기사들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협력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SK브로드밴드 하도급업체들이 간접 고용된 인터넷 설치 기사들의 명의를 도용해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희망연대노조와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은 3일 서울 SK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 협력사 소속 기사들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협력사 관계자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 마포홈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센터 소속 노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ID를 여러 개 만들었다. 기사들도 모르는 사이에 홍보성 글 게시와 카페 가입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는 SK브로드밴드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가 함께 벌인 일"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영업 압박을 받는 업체들이 고객뿐 아니라 고용된 노동자들의 정보도 불법 유출하는 심각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SKT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도용 실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조합원 700여 명이 SKT 고객센터를 방문해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파악한 결과 11%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도용한 서명으로 각종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들은 SKT의 개인정보 활용 실태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크림빵 아빠' 뺑소니 피의자 검찰 송치

청주 흥덕경찰서는 3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 허모(3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사고 당일 소주 4병 가량 마셨다고 자백했고, 동료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그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황상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31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현정기자

이명춘 서울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사의 표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된 이명춘 변호사가 최근 시교육청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내정자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한 이후 조희연 교육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감사관직은 여전히 임용 보류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떳떳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에 불편요인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며 "교육감은 기소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원칙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